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변인 연구

The Later Prepara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in the Middle' Rural Women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농업연구사 양순미*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홍숙자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Reser.: Yang, Soon-Mi

Dept. of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ong, Sook-Ja

<Abstract>

In order to promote well-being during old age, it is important to start preparing early on for the later life. Based on this thesis, this study examined attitudes of the middle-aged women residing in rural towns on their preparation for old age as well as related variables. For this purpose, survey data from 200 individuals were analyzed using a SAS program.

The overall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age was quantified as about 67 points out of a 100 possible points. The variables that affected the level of preparedness include attitude toward using a paid nursing home ($\beta=.23$), type of agricultural work they engage in ($\beta=-.21$), who do you think is a supporter during your old age($\beta=.20$), type of decision-making in the household ($\beta=.17$). The explanatory power of such variables as standards of living ($\beta=.18$), family type ($\beta=-.18$), recognition of the entrance of old age ($\beta=.17$), and preparation behavior for old age ($\beta=.15$) were partially proved in three sub-areas (economical, emotional, and leisure areas) of preparation.

The groundwork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materials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o improve the attitudes toward preparation for old age.

▲ Key word : 농촌여성(rural women), 중년기(middle age), 노후준비(preparation for old age)

1. 서론

오늘날 의학의 획기적인 발달,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1세기 초반에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14%)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14~21%)로 그리고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1%이상)로 까지 진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경이면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으면서 전 인구의 1/5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통계청, 1997). 또한 노인인구의 구성에서 점차로 80세 이상의 고령노인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생활주기에서 건강한 노령기와 의존적 노령기의 기간도 연장되고 있고 경제적·신체적 능력 등에서 지금 현재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성재, 1998).

이러한 노인인구증가와 비례하여 대두하는 심각한 문제는 노인들을 위한 연금을 뒷받침해 줄 일하는 젊은 세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사회보장제도가 파산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다(Cetron & Davies, 1998).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노인 1명의 연금을 위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인력은 4~5명 정

* 주저자 : 양순미(E-mail : ysm@rda.go.kr)

도인데, 미국의 경우 2030년이 되면 이같은 노동인력은 3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인 1명의 생계를 부담해야 할 노동인구가 2.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동일, 2001). 이러한 추세는 서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과거 30여년간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도시지역에서의 비율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았다는 사실(홍숙자, 2001)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농촌의 가족은 핵가족화와 더불어 평균가족구성원 수의 감소로 소가족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1970년 5.81명→2000년 2.91명) 이와 같은 가족구성원의 감소는 집안에서 노인을 간병할 수 있는 부양자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농림통계연보 1977, 2001). 한편 가족의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기능들은 약화되거나 사회의 다른 제도로 이관되어 노인에 대한 서비스적 부양기능인 질병시의 간호, 부축, 시중 등의 노인수발문제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가족구조와 가족들의 가치관 변화로 자녀들이 부모를 당연히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변화하고 있어 노인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에 우리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후의 문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나 국가가 노인문제의 해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까지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지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걸어진 노후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활동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규모의 중년기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후준비 정도나 이에 관련된 태도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걸어진 노년의 노후적응을 돕는 노후준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중년기 농촌여성들과 노후

인간발달은 연속적 변화의 과정으로써 환경적·심리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쉽지 않아 학자마다 그 견해를 달리한다. 이에 의해 중년기 범위가 모호하고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마다 각기 상이한 용어로 중년기를 언급하고 있다.

중년기를 성인기의 중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기는 수명에 따라 변화하여 평균수명이 괄목하게 늘어난 오늘날에는 과거 노인이라고 여겼던 연령층이 중년층에 속하게 된다. 중년기의 범위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Erikson(1963)은 40~60세, Vincent는 35~55세, Havighurst는 35~60세, 김재은은 40~60

세, 서봉연·유안진은 35~60세, 김애순은 중년을 35~60세의 연령층으로 구분하고 있다(김명자, 1998). 이에 근거하고 농촌여성들이 도시여성들에 비해 결혼 등의 발달과업이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점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농촌여성의 연령범위를 35~55세로 규정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농촌가족구조에서 농촌여성은 가부장적인 가족질서에 순응하고 집안일을 전담하면서 농업활동의 보조자로서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양순미, 2001).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도 그들은 결정권자나 참여자가 아닌 방관자나 주변인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의한 교통통신이나 매스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증가 등으로 도시인과 농촌인들의 의식의 차이가 감소해감에 따라 가부장적인 질서가 약화되고, 부부중심의 가족관계가 보편화됨에 따라 평등한 부부관계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즉 농촌의 여성은 가족내에서 보다 더 확실한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다 연장된 평균수명과 의학의 발달 등으로 노인들은 생애주기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노년기와 의존적으로 보내게 될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수명은 약 8세 정도 높았으며¹⁾(경제포털매경인터넷, 2001), 중년기 농촌여성들은 그들의 남편보다 평균 연령이 3세 정도 낮은 것²⁾으로 나타났다(양순미, 2001). 즉 중년기 농촌여성들은 그들의 남편들보다 평균 10년 이상의 노년기를 홀로된 상태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년기 농촌여성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노년기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2. 노후준비

노후에 대한 아무런 경제적, 심리적 대책없이 퇴직을 하게된 사람들의 노후생활은 경제수준의 저하와 가정내의 지위하락, 사회활동의 기회단절로 인한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된다. Rosow(1976)는 슬그머니 잘 모르는 사이에 노년기에 접어들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잃게 되며,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역할이 확연하게 단절되는 것 등이 노년기 사회화 특히 노령기에로의 예기적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했다(허정무, 1993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Gross, Crandall과 Knoll(1973 ; 황승일, 2000, 재인용)은

1)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보건보고서 2001”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70.5세, 여성의 평균수명은 78.3세이었다.

2) 양순미(2001)의 연구에 의하면 30~50대의 농촌의 아내들의 평균연령은 41.99세, 남편의 평균연령은 45.43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기는 건강, 수입, 고독, 은퇴문제들과 함께 나이에 따라 직면할 문제인 생활에 대한 준비, 시간사용, 재정적인 문제, 결혼한 자녀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후의 생활의 질과 관련되는 여러 선행연구들(홍성희 외, 1998; 홍숙자 외, 1995)에 의하면 노인의 신체적 건강은 삶의 만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Rowe와 Kahn(1997)은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질병이나 이와 관련된 능력저하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과 높은 인지적·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인 생활에의 참여라고 주장했다. 즉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년기의 적응과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체적 건강이 나쁠수록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며, 무력감 수준이 높고, 우울증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황승일, 2000 재인용). 이러한 신체적 노화는 정신적인 노화를 수반하게 되어 여러 가지 정신기능의 퇴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노후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신체건강과 질병에 대한 예방의학적 관심과 준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정도는 새로운 사회적 상태에 대한 정신적 적응정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Craig, 1980). 노년기의 정서적 변화는 정년퇴직, 배우자 사별, 자녀의 독립, 친구의 죽음 등 주로 역할상실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역할상실로 인해서 이제까지 가져왔던 인간관계는 축소되어 공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고독은 정신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홍미표, 1980). 따라서 노년기의 안정적 적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계형성이나 역할창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승영(1995)에 의하면 은퇴후 남자노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일찍부터 경제적 준비를 계획하여 대비하지 않는다면 노후에 원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모든 사람들이 노후를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립의식을 견지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 스스로가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 의한 경제적인 부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 것이다.

이상의 견해에 의하면 노후의 삶의 질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여가와 같은 측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정도를 규명함에 있어서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경제적 준비, 여가준비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왔다. 일부 수행된 연구들(배계희, 1988; 서전, 1991; 황승일, 2000)도 대상이나 연구수행시기 그리고 분석방법 등이 각기 달라 일반적인 경향을 논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도시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정도를 분석한 결과(배계희, 1988)는 전체적으로 약 65점 수준이었으며 그 중에 신체적 준비정도는 64점, 정서적 준비정도는 66.5점, 경제적 준비정도는 61.6점이었다. 도시의 초기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황승일, 2000)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약 67점 수준이었으며 그 중에 신체적 준비정도는 68.8점, 경제적 준비정도는 66.4점, 정서적 준비정도는 68.6점, 여가준비정도는 65.8점이었다. 한편 노후준비정도를 관련변인에 따라 분산분석한 결과(배계희, 1988)에 의하면 신체적, 정서적 준비정도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준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진 집단은 종교를 갖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연금혜택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인직장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후문제를 깊이 생각할수록 노후준비정도가 높았다. 또한 핵가족보다는 확대가족의 중년이 정서적인 준비정도가 높았다. 결혼한 자녀와 동거를 원하는 집단은 신체적, 정서적 준비정도가 높았으나 별거를 원하는 집단은 경제적 영역에서 준비정도가 높았다.

초기노인들의 노후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한 결과(황승일, 2000)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유료양로원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노후준비 정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책임(마음에 맞는 아들이나 딸), 유료양로원 필요성(필요하다), 유료양로원 이용태도(생각해 본적 없다)가 신체적인 노후준비 정도에 유의하게 작용하였으나 그중 유료양로원 이용태도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준비 정도에는 생활수준(중, 하), 희망부양상태(동거하면서 경제적 의존) 변인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준비 정도에는 생활수준(중, 하)은 부적으로, 유료양로원 필요성(필요하다)은 정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여가준비에는 종교 유무(있다), 배우자 유무(있다), 유료양로원 필요성(필요하다)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위의 결과들이 일부지역의 도시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단위를 규모로 하여 중년기 농촌여성들의 노후준비 정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에 관련된 태도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정도에는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35~55세에 이르는 중년기의 농업인 주부이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 변별력등을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서 3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본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에서 15개 시·군을 계통추출 한 뒤에, 해당 시·군에서 1~2개 마을을 중심으로 총 30개 마을에서 2001년 6월에서 8월에 걸쳐 모든 대상농가를 연구자와 보조원이 직접 설문·면접조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215명이 조사에 응했으며 그 중에서 200명의 자료만을 SA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척도

1) 노후준비 정도 척도

노후준비 정도 척도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가 영역에 대한 농촌여성들의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들(배계희, 1988; 서전, 1991; 황승일, 2000)을 고찰하여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일치하는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정말 그렇다(5)까지의 5점 Likert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전체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수준이었다. 한편 각 하위영역별 척도의 신뢰도는 신체적 영역이 .51, 경제적 영역이 .71, 정서적 영역이 .62, 여가영역이 .80수준이었다.

2) 노후에 관련된 태도 변인

노후에 관련된 태도 변인은 노후준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식이나 태도 등을 측정하는 변인으로서 황승일(2000) 등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총 1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중년이 인지한 노인 연령선, 노후준비 시기, 노후준비현황, 노후의 주거 및 경제생활 선호 형태, 노후의 부양책임자, 유료양로원 이용태도, 노후준비 교육요구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변인으로서 명목형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변인 중에 노인 연령선, 노후준비시기는 5세 간격으로 명목형으로 물었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이를 연속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이용하였다. 유료양로원의 필요도는 매우 필요하다(1)에서부터 전혀 필요하지 않다(5)까지 명목형으로 물은 뒤에 이를 역코드화하고 연속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3) 가족 및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가족 및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은 양순미(1995)의 연구 등을 참고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의 의사결정 유형, 결혼상태, 영농형태는 명목형으로 구성하였다. 생활비 관리자는 개방형으로 작성하였다. 가족구성원의 수, 가족형태, 나이, 학력, 종교, 직업 등은 테이بل형의 개방형으로 작성한 뒤에 일부 이를 재구성하였다. 생활수준은 하하(1)에서 부터 상상(6) 까지 6점 Likert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영농형태변인을 시설원에 농가와 비시설원에 농가로 구분하였다(표 4참조).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및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는 35~55세에 해당하는 농가주부로서 평균연령은 45세 이었다. 주부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38.5%, 남편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5.6%이었다. 아내의 경우 순수농이 93.5%, 남편의 경우 순수농이 88.0%이었다. 가족형태는 부부+자녀 가족이 45.2%, 확대가족이 40.2%이었으며 평균가족원 수는 4.15명이었다. 가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82.9%가 본인이 의견을 제시하며 이 의견이 반영된다고 했으며, 응답자의 46%가 본인이 생활비를 관리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30.3%는 남편이나 시부모가 관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종교는 없음이 40.3%, 있음이 59.7%이었다. 응답자의 47.5%가 비농사농가이었으며 16.7%가 시설원예농가이었다(표 1).

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관련 태도 변인의 일반적인 특징

노인으로 인지하는 연령선을 묻은 결과 65세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44.5%, 70세가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23.5%이었다. 이것은 노인연령선이 65세 전후로 상승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배계희, 1988; 최순남, 1981)보다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서 노인연령선이 65세를 넘어서 70세로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80년대에 비해 증가한 평균수명이나, 도시에 앞서서 90년대 말에 이미 고령화에 진입한 농촌의 노인문제에 대해 농촌 지역인들의 인식기반이 확산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노후준비의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44.7%가 40세 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평소노후문제를 어느 정도나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대비한다”가 28%,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중이다”가 43%, “별로 생각치 않는다”가 21%,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가 8.0%이었다. 무엇을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려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2%가 저축 등을 통한 경제적인 준비라고 했으며 적당한 일거리 준비도 18.2%여서 경제적인 측면에 대

<표 1> 조사대상의 가족 및 사회인구학적인 특성(n=200명)

변인		빈도	변인		빈도
변인명\집 단		N(%)	변인명\집 단		N(%)
연령	35 ~ 40세	37(18.9)	생활 수준	상	32(16.0)
	41 ~ 50세	108(55.1)		중	157(78.5)
	51 ~ 55세	51(26.0)		하	11(5.5)
	※ 평균연령	45.0(±5.51)		※ 평균수준	3.77(±0.93)
계		196(100)	계		200(100)
아내의 학력	무 학	2(1.0)	남편의 학력	무 학	3(1.6)
	초등학교 졸	75(38.5)		초등학교 졸	53(28.2)
	중학교 졸	74(38.0)		중학교 졸	56(29.8)
	고등학교 졸	43(22.0)		고등학교 졸	67(35.6)
	전문대졸이상	1(0.5)		전문대졸이상	9(4.8)
계		195(100)	계		188(100)
가족 형태	부부	26(13.1)	영농 형태	시설원예	33(16.7)
	부부+자녀	90(45.2)		미 맥	94(47.5)
	확대가족	80(40.2)		축 산	27(13.6)
	독거	3(1.5)		과 수	6(3.0)
	※평균가족원 수	4.15(±1.47)		기 타	38(19.2)
계		199(100)	계		198(100)
아내의 직업 형태	순수농	186(93.5)	남편의 직업 형태	순수농	169(88.0)
	겸업농	13(6.5)		겸업농	23(12.0)
계		199(100)	계		192(100)
지역	평야지역	160(80.0)	종교	없 음	79(40.3)
	산간지역	40(20.0)		있 음	117(59.7)
계		200(100)	계		196(100)
결혼 상태	초혼	192(96.5)	생활비관리 자	본인	91(46.0)
	이혼후 재혼	2(1.0)		남편	60(30.3)
	사별후 독신	5(2.5)		부부공동	45(22.7)
	계	199(100)		시부모	2(1.0)
			계		198(100)
의사 결정 양상	타인이 결정				17(8.6)
	본인이 결정				10(5.0)
	의논하나 의견제시 않음				7(3.5)
	의논하며 의견제시 함				165(82.9)
계					199(100)

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노후의 주거 및 경제 생활양식에 대해 응답자의 56.6%가 노후는 자택에서 독거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겠다고 했다. 부모부양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31%가 부모인 나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해 40.5%가 부모인 나 자신이라고 응답한 도시관련연구(황승일, 2000)에 비해 다소 낮은 자기부양의식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대노인들의 절반이상(55.5%)이 자녀의 노부모 부양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이가옥, 1994)는 노부모의 피부양의식 연구결과에 비교해서 본다면 이는 농촌의 차세대 노인 즉 중년기 여성들의 노후부양의식이 가족부양에서 자기부양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동거나 의존적인 부양에는 부모와 자녀세대간에 많은 갈등이 내포되어 있음을 차기노후세대인 중년기 농촌여성들이 심각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유료양로원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86%가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용태도에 관한 질문에는 22%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유료양로원에서 노후를 보내겠다고 했으며, 약 30%는 유료양로원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들 중에 50%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정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응답자의 24%가 유료양로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 도시관련 연구(황승일, 2000)와 비교할 때 중년기 농촌여성들의 유료양로원 이용태도는 보다 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표 2).

3.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 정도

전체적인 노후준비 정도는 백분위 점수로 66.5점으로서 기존의 도시관련 연구 결과들(배계희, 1988; 황승일, 200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각 영역별로는 여가준비정도가 63.1점으로 가장 낮았고 정서적인 준비정도는 70.1점으로서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표 3), 선행연구결과(배계희, 1988; 황승일, 2000)에 비교해서는 여가와 신체적인 영역의 준비 정도는 다소 낮았다. 이것은 농촌의 여성들이 다중한 역할활동(조혜정과 양순미, 1996)으로 인해 여가나 레저활동, 사회봉사 및 건강대비 여건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시간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관련 태도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변 인		빈 도
변인명\집 단		N(%)
몇 세부터 노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	55세 이상	8(4.0)
	60세 이상	56(28.0)
	65세 이상	89(44.5)
	70세 이상	47(23.5)
	계	200(100)
노후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은가	40세 이상	89(44.7)
	45세 이상	33(16.6)
	50세 이상	42(21.1)
	60세 이상	17(8.5)
	65세 이상	18(9.1)
계	199(100)	
평소 노후문제를 어느 정도나 생각하는가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대비	56(28.0)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중임	86(43.0)
	별로 생각치 못함	42(21.0)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함	16(8.0)
	계	200(100)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대비하거나 계획을 세우려는 중인가	적당한 일거리 준비	24(18.2)
	저축 등에 의한 경제적 준비	57(43.2)
	심리·정서적인 준비	10(7.6)
	신체적인 준비	9(6.8)
	여가나 사회봉사 준비	11(8.3)
	기타	21(15.9)
	계	132(100)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가	자식과 동거, 경제적 지원	14(7.1)
	자식과 동거, 경제적 자립	32(16.1)
	독거, 경제적 지원	23(11.6)
	독거, 경제적 자립	112(56.6)
	시설, 경제적 지원	5(2.5)
	시설, 경제적 자립	12(6.1)
	계	198(100)
부모부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장남	28(14.0)
	아들 모두	30(15.0)
	아들, 딸 구분없이 모든 자식	62(31.0)
	부양을 원하는 자녀	11(5.5)
	부모자신	62(31.0)
	국가와 사회	7(3.5)
계	200(100)	
유료 양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그렇다	32(16.0)
	그렇다	75(37.5)
	그저 그렇다	65(32.5)
	그렇지 않다	20(10.0)
	전혀 그렇지 않다	8(4.0)
	계	200(100)
유료 양로원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들어가고 싶다	6(3.0)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들어간다	44(22.0)
	시설과 대우가 좋으면 들어간다	32(16.0)
	들어가고 싶지 않다	44(22.0)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16(8.0)
	생각해 보지 않았다	58(29.0)
계	200(100)	
유료 양로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응답했다면 그 이유는?	자녀들의 체면 때문에	7(11.7)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15(25.0)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	30(50.0)
	기 타	8(13.3)
	계	60(100)

<표 3> 중년기 농촌여성이 인지한 노후준비 정도의 일반적인 경향

내 용	구 분	백분위		
		m	s.d.	
전체적인 노후준비		116.32	17.92	66.5
신체적인 준비 영역		29.04	5.37	64.5
경제적인 준비 영역		27.32	5.71	68.3
정서적인 준비 영역		31.55	5.39	70.1
여가준비 영역		28.40	7.54	63.1

4.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우선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³⁾를 산출한 결과는 1.87~2.08이었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를 산출한 결과는 모두 2.7이하

인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

회귀분석에 의하면 노후준비정도의 전체모델의 설명력은 30%이었다. 하위영역중 신체적 준비정도영역의 모델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준비정도영역의 설명력은 29%, 정서적 준비정도 영역의 설명력은 23%, 그리고 여가 준비정도 영역의 설명력은 22%이었다.

전체모델에는 가족의 의사결정양상, 영농형태, 노후부양책임자 인지 양상, 유료양로원 이용태도 변인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중 경제적 준비정도 영역에는 노후준비양상, 영농형태, 생활수준, 노인선 인지 연령, 노후부양 책임자, 유료양로원 이용태도 변인이 유의하게 작용했다. 정서적 준비정도 영역에는 영농형태, 가족형태, 노후 부양책임자, 가족의 의사결정 양상 변인이 그리고 여가준비 영역에는 영농형태, 가족의 의사결정 양상, 노후부양 책임자 변인이 유의하게 작용했다. 즉 영농형태중 시설원예농가 보다는 비시설원예농가인 경우 전체,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여가영역의 노후준비정도가 높은 것

<표 4>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n=200)

영역	변인				
	전체	신체적영역	경제적영역	정서적영역	여가영역
변인	b(β)	b(β)	b(β)	b(β)	b(β)
가족형태	-4.40(-.12)	-0.01(-.00)	-1.20(-.10)	-1.96(-.18)*	-1.13(-.07)
가족원의 수	1.37(.11)	-0.08(-.02)	0.47(.12)	0.44(.12)	0.67(.13)
연령	0.39(.12)	0.10(.10)	0.11(.11)	0.15(.16)	0.10(.07)
아내의 학력	4.00(.19)	0.47(.07)	0.63(.09)	0.63(.10)	1.23(.13)
남편의 학력	0.11(.01)	-0.44(-.08)	-0.12(-.02)	0.49(.08)	0.61(.08)
생활수준	1.67(.09)	0.20(.04)	1.04(.18)*	0.48(.08)	0.04(.01)
종교	-2.08(-.06)	-0.50(-.05)	-0.21(-.02)	-0.18(-.02)	-1.11(-.07)
지역	2.27(.05)	1.64(.12)	0.76(.05)	0.10(.01)	0.16(.01)
영농형태	-10.17(-.21)**	-2.37(-.16)*	-2.34(-.15)*	-2.17(-.15)*	-3.16(-.16)*
의사결정 양상	8.15(.17)*	0.67(.05)	2.00(.13)	3.00(.20)**	3.07(.15)*
가계비 관리권	0.48(.01)	-0.04(-.00)	0.98(.08)	0.29(.02)	0.12(.01)
노인선 인지 연령	2.41(.11)	-0.66(-.10)	1.19(.17)*	0.87(.13)	0.74(.08)
노후준비 시기	0.47(.03)	-0.24(-.06)	-0.25(-.06)	0.21(.05)	0.26(.05)
노후준비 양상	4.00(.10)	0.28(.02)	1.84(.15)*	0.66(.05)	0.80(.05)
노후주거,경제계획	-2.97(-.08)	0.54(.05)	-0.71(-.06)	-1.33(-.12)	-0.94(-.06)
노후부양 책임자	7.64(.20)**	0.77(.07)	2.28(.19)**	2.08(.18)*	2.95(.18)**
유료양로원 요구도	-0.34(-.02)	-0.10(-.02)	-0.16(-.03)	0.14(.03)	-0.24(-.03)
유료양로원이용태도	8.38(.23)**	1.53(.14)	2.39(.21)**	1.33(.12)	2.30(.15)
intercept	58.48	24.30	9.00	12.32	10.93
F값	3.36***	1.13	3.52***	2.59**	2.59**
R ²	.30	.11	.29	.23	.22
D-W	1.98	1.95	1.87	2.08	1.94

가족형태 : 확대가족(1), 기타(0) 종교유무 : 무(1), 유(0) 지역 : 평야(1), 산간(0)
 영농형태 : 시설원예(1), 기타(0) 가족 의사결정 양상 : 의사표명하고 반영함(1), 기타(0) 가계비 관리권 : 본인(1), 타인(0)
 노후부양 책임자 : 자신(1), 타인(0) 유료양로원 이용태도 : 이용할 것임(1), 기타(0) 노후주거경제계획 : 별거·자립(1), 기타(0)
 노후준비양상 : 깊이생각·준비(1), 기타(0) * p < .05 ** p < .01 *** p < .001

3) 잔차간에 상관이 없을 경우 Durbin-Watson 계수는 2에 가깝게 되므로(김인호, 1983), 본 연구에 투입된 변인들의 경우에는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설원예 농가 여성들의 노동시간이 여타 비시설원예 농가보다 더 길어4), 과중한 농업노동으로 인한 노후준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제약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생활수준은 경제적인 노후준비정도에 정적으로 작용하여 생활수준이 높은 농가는 낮은 농가에 비해 원활하게 노후준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황승일, 200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확대가족은 정서적 영역의 노후준비정도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선행연구결과(배계희, 1988)와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확대가족의 중년기 농촌여성들은 중간세대(sandwich generation)로서의 노인부모양이나 자녀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자신들을 위해 노후를 준비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핵가족에서는 부부중심의 가족관계가 보편화되고 평등한 부부관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한국여성개발원, 1993), 따라서 과거에 비해 현재의 중년기 농촌의 핵가족 아내들이 가정에서 주도권과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점차 자신의 노후 삶을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가족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체, 정서적, 여가영역에서 노후준비정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도 이와 같은 논의를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인선 인지연령이 높을 수록 경제적 영역의 노후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노후를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집단이 경제적인 노후준비정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인선 인지연령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년기의 노동력을 낮게 평가하여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 보다 잘 준비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진다.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원보다는 자기부양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전체, 경제적, 정서적, 여가영역의 노후준비 정도가 높았으나 이는 선행연구(황승일, 2000)와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나 노후부양에 대한 책임소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수록 경제, 정서, 여가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노후준비정도에 긍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료양로원에 대한 이용태도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경우 전체, 경제적, 여가영역의 노후준비정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황승일, 2000)와 일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 정도는 노후부양책임자나 유료양로원 이용태도 등에 따른 의식이나 의사결정양상 등의 가족생활양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어느 수준까지는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 농가주부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축산농가 주부의 농업노동 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48분, 과수농가 주부의 농업노동 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25분, 그리고 시설원에 농가 주부의 1일 평균 농업노동 시간은 9시간 38분이었다(농촌진흥청, 1994).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국 8개도 15개 시·군 30개 마을의 중년기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노후에 관련된 태도 변인들의 일반적인 양상을 분석하고 노후준비 정도와 이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이에 관련된 결론을 제언하자면 첫째, 노후준비정도에 관련된 변인들의 일반적인 양상을 조사한 결과에서 중년기 농촌 여성들이 인지하는 노인연령선은 65세를 넘어 70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45%가 40세 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노후준비를 구체적으로 대비하거나 노후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전체 71% 응답자중 과반수 이상인 61%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중년기 농촌여성들의 자기부양의식은 도시지역 연구 결과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나 과거에 비해 피부양역의식이 감소하고 점차 자기부양의식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질적으로나 거주형태면에서 자녀들과 독립하고 싶다는 이른바 자기부양의 의미가 자식들이 노인들을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충분히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도가 없음을 농촌의 차세대 노인들 즉 중년기 농촌여성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상당수(86%)의 응답자가 유료양로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이용의사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준은 도시지역의 결과보다 낮게 드러났으며 노후에 시설입주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거부감이 그 주된 요인이었다. 유료양로원 이용태도는 도시관련연구(황승일, 2000) 대상자들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길어진 노년기 생애주기, 남성에 비해 긴 평균수명과 홀로됨의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중년기 농촌여성들의 노후생활의식이 가족부양에서 자기부양의 차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전체적인 노후준비 정도는 백분위 점수로 66.5점으로서 도시지역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다른 영역에 비해 여가영역의 준비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에 정서적인 준비영역은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따라서 중년기 농촌여성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다중역할을 고려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다.

넷째, 전체적인 노후준비 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영농형태, 의사결정양상, 노후부양책임자, 유료양로원 이용태도이었다. 이외에 생활수준, 노인선 인지 연령, 노후준비양상, 가족형태 변인이 하위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족생활이 평등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노후부양을 자기책임으로 인지하며 유료양로원 이용태도 등의 노후생활양식이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농촌여성들은 노후준비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중년기 농촌여성들의 노후준비정도나 이에 관련된 가족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후준비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농촌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한 관련연구가 거의 없고 일부 선행연구 또한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이어서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주로 관련 사항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수준으로 접근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부 비교의 준거로 이용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와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이나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성을 부여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전국규모의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준비정도를 규명했다는 점과 이의 결과가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접수일 : 2002년 7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12월 16일

【참 고 문 헌】

경제포털 메경인터넷(2001). 평균수명. www.mk.co.kr.

김동일(1980). 한국노인문제의 대책 ; 근대화와 노인문제-사회심리적 고찰. 한국노년학회지, 제1권, 38-43.

김동일(2001). 장수시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생존전략. 한국노년학회지, 21(1), 167-181.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김인호(1983). 회귀분석론. 서울 : 비봉출판사.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전(1991). 중년기 가족의 노부모 부양행동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순미(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가옥(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조혜정, 양순미(1996). 농촌여성의 생산활동 스트레스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27-138.

최성재(1992).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 보험가입자 대상으로-. 한국노년학회지, 12(2), 1-22.

최순남(1981).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 발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숭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통계청(1997). 장래인구추계.

한국여성개발원(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정무(1993). 교원의 정년퇴직 준비과정과 퇴직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미표(1980). 배우자 및 사회참여 유무에 따른 노화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1), 121-139.

홍성희, 이경희, 박인숙, 김순미, 김혜연, 김성희(1998).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1-22.

홍숙자, 이형실, 전진양(1995).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부양 교육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3(5), 197-209.

Cetron, M. & Davies, O.(1998). *Cheating death*. New York: St. Martin's press.

Criag, G. J.(1980). *Human development*(2nd ed). Engel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Eric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 North and Co.

Rosow, I. (1976). Status and role change through the life-span. In R. H. Binstock & Sti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N.Y. Van Nosthard reinhold,

Rowe, J. W. & Kahn, R. L.(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 Dell Publishing Co.